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오감 체험
五感 口

후각체험 『茶』

Touch sense

Sight sense

Auditory sense

Smell sense

Taste sense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오감 체험
五感

경기도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5가지 테마로 나눈 한국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거리를 좁히고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오감 (the five senses)은

미각(the sense of taste),

시각(the sense of sight),

후각(the sense of smell),

청각(the sense of hearing),

촉각(the sense of touch)을 말하며

각 회차 별로 한 가지의 테마를 체험합니다.

문화는 국경과 인종의 차이가 없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며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문화입니다.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를 만나다.

근로자로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처음 발을 디딤니다.

내 나라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김새도 나와 닮은 나라.

걱정도 많았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이 나라에 왔습니다.

이 길을 선택했던 목적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가족 생각에 고향 생각에 힘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거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더 낯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듣는 가족의 목소리.

힘내라는 한 마디에 나는 오늘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했던 사람들이 날 보며 웃어주듯이

이젠 나도 어렵고 다르다고만 느꼈던 대한민국에 한 발 다가서려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를 만나러 갑니다.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오감 체험
五感 口 체험

후각체험 『茶』

Touch sense

Sight sense

Auditory sense

Smell sense

Taste sense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 사업목적

- 경기도의 미래를 향해 함께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느끼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해소하고, 경기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
- 경기도내 전통문화를 테마로 나누어 체험함으로써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이해 고취와 다문화 커뮤니티 사회 구현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의 계기

◆ 행사일정

- 1차 : 2008년 10월 23일(목) - 시각체험 (수원 - 성곽)
 - ▶ 화성홍보관 견학, 수원 화성 견학, 무형문화재 전수관 견학, 수원역사박물관 견학 등
- 2차 : 2008년 10월 26일(일) - 촉각체험 (이천 - 공예)
 - ▶ 해강도자미술관 견학, 도자기 강좌, 도자기 만들기, 도예촌 또는 세계도자센터 견학 등
- 3차 : 2008년 11월 6일(목) - 미각 체험 (여주 - 음식)
 - ▶ 오감도토리마을 방문 및 체험(도토리묵 만들기 등)
- 4차 : 2008년 11월 9일(일) - 시각체험 (안성 - 유기)
 - ▶ 안성맞춤박물관 관람, 안성마춤 유기공방 관람 등
- 5차 : 2008년 11월 16일(일) - 후각체험 (김포 - 茶)
 - ▶ 다도 박물관 견학 및 다도예절 교육 등

◆ 사업개요

- 일 자 : 2008년 11월 16일(일)
- 장 소 : 경기도 김포시, 다도박물관 외
- 주 제 : 후각체험 - 茶
- 참가대상 : 안산 온누리M센터
- 참가인원 : 40명 (진행요원 포함)
- 주 최 : 경기도
- 주 관 :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2:00 - 13:00	중식	
13:00 - 14:00	덕포진 및 유물전시관 관람	
14:00 - 14:30	이동	
14:30 - 16:30	다도박물관 - 다도예절 등 체험	
16:30 -	귀가	

목 차

◆ 한국문화

문화일반	3
한국의 문화상징	4

◆ 후각체험 - 茶

茶 이야기	9
차 마시는 방법	10
규방다례	14
김포시	27
덕포진	33
김포다도박물관	34

한국문화

후각체험 『茶』

Touch sense

Sight sense

Auditory sense

Smell sense

Taste sense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문화 일반

♣ 언어 - 한국어

표준어는 '현재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중류층의 언어'이다. 지역에 따라 다양한 사투리를 쓰지만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다.

♣ 문자 - 한글

♣ 종교

한국은 헌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인 중 53.6%가 종교를 갖고 있다(1999년 기준). 불교 26.3%, 기독교 18.6%, 가톨릭 7.0%이며, 그 밖에 천도교, 원불교 등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종교와 다양한 소수 종교가 있다.

♣ 스포츠

한국은 스포츠 강국이다. 올림픽에서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있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준결승에 진출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프로축구인 K-리그를 비롯하여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다양한 프로스포츠 리그가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은 몇 가지 종목에서 뛰어난 실력을 드러내고 있다. 올림픽 경기에서 양궁, 레슬링, 유도, 태권도, 탁구 종목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으며, 골프 분야에서도 많은 스타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 대중문화

한국은 뛰어난 예술가를 많이 배출한 문화국가이다. 고전예술과 대중예술이 두루 한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손꼽히는 것은 영화산업인데, 2004년에는 칸느, 베니스, 베를린 등 세계 3대 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가 감독상과 심사위원 대상을 휩쓸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와 가요, 영화배우와 가수 등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의 문화 상징

♣ 한복



한복은 2000년 전부터 입어 온 한국인의 옷이다. 한복은 넉넉하고 부드러운 옷으로 남자옷(바지저고리)과 여자옷(치마저고리)이 조금 다르다.

추울 때는 외출복으로 남녀 모두 두루마기를 덧입는다. 발에는 양말과 비슷한 버선을 신고 가족신이나 고무신을 신는다.

오늘날 한복을 일상복으로 입는 사람은 별로 없다. 주로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이나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날에 입는다.

♣ 탈춤



탈춤은 탈(가면)을 쓰고 등장한 인물들이 펼치는 민중 연극이다. 가난한 백성, 하인, 천민이 자신들을 억누르는 지배계급을 놀리는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민중은 저항과 풍자가 담긴 탈춤을 통해 사회적 불만을 풀어냈다.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에 따라 이야기와 춤이 다르므로 등장하는 탈도 다르다. 탈춤은 일본 강제 점령기에 금지되어 사라졌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다시 활

발해졌다. 지금은 직접 탈을 만들고 탈춤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 고려인삼



인삼 뿌리는 사람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인삼은 피로를 풀어주고, 혈압과 혈당을 낮춰주고,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있다. 인삼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도 산출되는데, 한국 인삼(고려인삼)이 가장 좋은 인삼으로 꼽히고 있다. 고려인삼의 신비로운 약효는 17세기 초부터 널리 알려졌다.

인삼은 처리 및 보존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밭에서 수확한 인삼은 '수삼'이라 하고, 수삼을 건조시킨 것을 '백삼'이라 한다. 또 수삼을 찌서 말린 것을 '홍삼'이라 한다.

인삼을 가공한 상품으로는 인삼차, 인삼주, 분말, 절편, 초콜릿, 사탕 등이 있다.

♣ 태권도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무술 중의 하나이다. 한국 전통무술에는 태권도 외에도 손을 사용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수벽치기, 섬세하고 부드럽게 몸을 놀리면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는 태권, 검도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전통무술은 태권도이다.

오늘날에는 올림픽의 경기종목에도 포함되어 있다. 태권도는 기술보다 정신적 수련이 더 강조되며, 신체의 에너지가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수련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어린이들은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태권도를 많이 배운다. 전국 곳곳에 태권도를 가르치는 태권도 도장이 있다.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한국의 문화상징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에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많이 있다. 이 중 서울에 있

는 창덕궁과 종묘, 수원의 화성,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 합천의 해인사 장경판전, 한글과 조선시대 왕조의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 불국사와 석굴암



오랜 불교국가였던 한국에는 사찰, 경전, 불상 등 불교에 관련된 문화재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서기 751년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이다.

불국사는 사찰건물만이 아니라 딸려 있는 탑과 조각품 모두가 신

라시대의 불교문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것들이다.

인공적으로 만든 석굴 안에 돌로 만든 대형 부처님을 모셔놓은 석굴암은,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건축기술로 뛰어난 신라시대의 불교 예술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종묘제례는 왕실에서 전왕의 업적을 칭송하며 지내는 제사와 이때 연주되었던 음악과 노래 등 왕조 제사 문화 일체를 뜻한다. 한국의 왕실에서 연주되는 각종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등이 총동원되며 장중하고 우아하다. 서울 종로 4가에 있는 종묘에서는 해마다 5월 첫째 일요일에 제례를 재현한다.

♣ 한글

한글은 15세기 중반, 조선의 4번째 왕인 세종대왕이 만든 것으로 아주 과학적인 글자이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후각체험 - 茶

후각체험 『茶』

Touch sense

Sight sense

Auditory sense

Smell sense

Taste sense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여 백

茶 이야기

차는 그 탁월한 색향미와 효능으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인의 음료로 사랑받고 있다. 유럽에 차가 전해진 것은 16세기의 일이지만 동양에서는 BC3,000년경부터 차를 마셔왔으며, 차생활을 중심으로 동양 특유의 문화가 피어났다. 따라서 동양문화는 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발효차인 홍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동양에서는 불발효차인 녹차를 즐긴다.

한국 중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3국의 차문화가 나름대로 특징을 보인다. 중국에서는 향을, 일본에서는 색을, 한국에서는 맛과 멋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은,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하여 삼천리 방방곡곡에 맑은 물이 넘쳐나서 "좋은 물이 있어야 좋은 차를 우린다"는 옛 가르침의 실천 현장이었으며, 여기에 검소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을 일상화 함으로서 자칫 거칠어지기 쉬운 행동과 심성을 순화하고, 나아가 웃사람 공경하는 예절이며 이웃과 화목하는 근본으로 삼았다.

한국의 기후와 토양에서 자란 인삼이 세계 어느 나라 인삼보다 우수하듯 차 역시 한국의 야생차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차보다 뛰어난 맛과 효능을 가지고 있어 한국의 차문화는 오천년 역사의 중심이요 바탕이었다.

차 마시는 방법

1. 차 우리는 법

좋은 차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형, 향기, 색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녹차는 겉모양이 가늘고 광택이 있으며 잘 말려 있는 것이 좋다. 또한 연황색이 나는 묵은 잎의 함유가 적어야 하며, 손으로 쥐었을 때 단단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이 상등품이다.

차는 제조시기에 따라 첫물차(4월20일~5월10일에 채엽), 두물차(6월중순~6월하순에 채엽), 세물차(9월하순~10월초순채엽) 등으로 구분되는데 첫물차의 품질이 가장 뛰어나며 가격도 비싼 편이다.

차를 구입할 때는 용도나 마시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차를 처음 마시는 사람은 구수한 맛이 있는 현미녹차가 적당하고, 사무실에서 피로회복이나 두뇌회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마실 때는 현미녹차보다 첫물차가 적당하다. 가정내에서 가족끼리 모여 차를 마실 때는 차의 맛과 향을 음미 할 수 있는 고급차가 어울리며, 야외나 운동경기중에는 설록차 캔이나 PET제품이 간편하다.

차를 우리기 위해서는 차와 물과 이 두가지를 넣어 우릴 수 있는 그릇이 있으면 된다. 물은 돌 틈에서 솟아나는 석간수를 으뜸으로 치는데 일반 수도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하룻밤 정도 재워서 쓰면 좋다.

- 우선 물을 100C로 끓이면서 다구를 정돈한다.
- 물식힘사발, 차주전자, 찻잔 순으로 사용할 다기를 뜨거운 물로 한번 행구는 동시에 예열을 준다
- 100C의 물을 물식힘사발에 담아 약간 식힌다.
- 차주전자에 1인당 2g 안팎의 차를 넣은 뒤 물식힘사발에서 약간 식은(70C) 정도로 물을 차주전자에 넣는다.
- 2분 정도 두었다가 잔에 따른다. 잔에 따를 때는 한번에 다 따르지 않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다시 위에서 아래로 옮겨가며 조금씩 잔을 채워 색과 향과 맛을 고르게 한다.
- 찻잔은 왼손으로 받친 뒤 오른손으로 살며시 감싸준다. 먼저 차의 빛깔을 보고, 다음 향기를 맡은뒤 맛을 보도록 한다. 한잔을 보통 세 번 정도에 나누어 마시도록 한다.

2. 녹차 우려마시는 법

차의 성분은 계절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다. 일반적으로 첫물차는 아미노산이 많아 감칠 맛이 강하고, 두물차나 세물차는 카테킨이 많기 때문에 떫은 맛이 강하다. 또한 뜨거운 물로 차를 끓이면 떫은 맛 성분이 빨리 우려나 차의 맛이 떫고 낮은 온도의 물로 천천히 우려면 감칠맛이 나는 차가 된다. 따라서 차의 종류에 따라 물 온도를 달리하여 맛있는 차가 되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우롱차 마시는 법

우롱차는 녹차와는 달리 잎이 둥글게 말려있고 가열처리에 의해 향기성분이 잎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물 온도를 높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보온력이 강한 사기류 다관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며 다관을 따뜻하게 하여 탕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 된다.

4. 홍차 우리는 법

홍차는 밝고 투명한 적등색의 수색과 풍부한 향기, 약간의 떫은 맛으로 세계각국에서 가장 널리 음용되고 있는 차이다. 홍차를 보다 맛있게 마시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규칙이 있는데 이를 보통 골든룰이라고 부르며 영국식의 가장 보편적이고 정통적인 음다 방법이다. 그 내용은 티포트를 사용하고 차의양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며 반드시 끓인 열탕을 사용하고 티포트로 잘 우려낸다는 것이다.

5. 다구(茶具)

제다법(製茶法)과 전다법(煎茶法)의 변천에 따라 다구도 시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신라에서는 국산차와 당나라의 떡차[餅茶]를 마셨으므로 전다도구(煎茶道具)도 당나라 육우(陸羽)의 《다경(茶經)》에 적혀 있는 24종의 다기가 준용되었으나, 다구의 소재와 형태는 고유한 것이었다.

《삼국유사》의 < 월명사 도술가(月明師兜率歌) >조에 따르면 신라에도 다구 세트[品茶一襲]가 있었다.

가루차[末茶]와 끓인 물을 융합할 때 당나라에서는 무쇠가마[]를 썼으나, 신라에서는 최치원(崔致遠)의 < 진감국사비문(眞鑑國師碑文) >에 적힌 대로 돌솥[石釜]을 사용하였다.

야외에 다구를 휴대할 때 당나라에서는 대광주리[]에 담아갔으나, 《삼국유사》의 < 경덕왕 충담사 >조에 따르면 빛나무통에 담아서 둘러메고 다녔다.

당나라에서는 찻주발[茶]을 썼으나 신라에서는 찻사발[茶]이 사용되었다. 이곡(李穀)의 《동유기(東遊記)》에 따르면 사선(四仙)이 쓰던 차부뚜막[茶]이 강릉 경포대에 있었고, 한송정(寒松亭)에는 차샘[茶泉] · 돌부뚜막[石] · 돌절구[石臼]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제현(李齊賢)의 < 묘련사 석지조기(妙蓮寺石池記) >에 따르면 순암법사(順菴法師)가 동해안에서 본 사선의 다구 유물은 묘련사에 남은 두 바윗덩이와 같다고 하였다.

하나는 샘물을 담는 것이며, 또 하나는 두 군데가 오목하게 패어 있는데, 원형에는 물을 담았고, 타원형에서는 찻그릇을 씻은 듯하다.

고려시대에는 연고차(研膏茶)를 가루 낸 말차를 마시기 위하여 차맷돌[茶磨]이 사용되었다. 차맷돌은 마찰열로 인한 차의 변질을 막기 위하여 이인로(李仁老)가 읊은 절의 차맷돌시에 있듯이 개미 걸음처럼 천천히 돌렸다.

물을 끓일 때는 풍로(風爐)에 탕관(湯罐)을 얹고 불을 지폈다. 탕관의 종류에는 돌솥[石鼎] · 쇠솥[金鼎] · 탕솥[湯鼎] · 탕병[湯壺] · 쇠병[鐵瓶] · 은병(銀瓶) · 돌냄비[石] · 귀솥[] · 철관(鐵罐) 등이 있었다.

가루차와 탕수를 융합시키는 기구는 금가루를 입힌 검은 잔[金花烏盞]이나 청자의 작은 사발[翡色小]과 구리 숟가락이나 대나무 토막으로 만든 찻술[茶]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다구들은 붉은 상[紅俎]에 줄지어 놓고 붉은 비단 상보로 덮어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잎차[葉茶]를 탕수에 담갔다 다기(茶氣)를 우려 마시는 엄다법(淹茶法)으로 바뀌어 다구도 바뀌었다.

잎차와 탕수를 융합시키는 그릇으로는 차병(茶瓶:茶壺) · 다관(茶罐) · 전다기(煎茶器) 등이 사용되었다. 다관에는 은 · 구리 · 도자기가 사용되었는데, 손잡이는 횡수형(橫手型)이 많다. 찻잔에는 다종(茶鍾) · 찻보시기[茶甫兒]가 사용되었는데, 백자 찻잔을 사용한 것은 연둣빛 찻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에도 조선시대와 같이 잎차를 이용하므로 탕관 · 다관 · 찻잔 · 찻숟가락 · 찻

잔받침 · 표주박 · 찻상 · 찻쟁반 · 차행주 · 물항아리 · 개숫물통 등의 전승 다구가 사용되며, 찻잔과 물만 있으면 마실 수 있도록 포장한 차도 보급되었다.

다구는 차를 마시기 위해 갖추어야 할 도구들을 가리킨다. 기본적인 다구(茶器)에서부터 찻상, 다반, 차시, 다포 등을 통틀어 다구라고 한다.

다구의 명칭과 쓰임새

- ❖ 다관 - 차를 우려내는 주전자이다.
- ❖ 찻잔 - 다관에서 우려난 차를 따라 마시는 잔이다.
- ❖ 숙우 - 다관에 물을 붓기 전에 적당한 온도로 식게 하는 그릇이다.
- ❖ 찻상, 다반 - 다기를 올려놓는 상과 소반을 가리킨다.
- ❖ 다포 - 찻상과 다반 위에 덮고 그 위에 다기를 올리는 수건이다.
- ❖ 차시 - 마른 차잎을 다관에 일정량 떠 넣을 때 사용하는 숟가락이다.
- ❖ 차탁 - 잔받침이다.
- ❖ 개인 다기 - 편리함을 위해 고안된 잔, 거름망, 잔 뚜껑으로 구성된 다기이다.
- ❖ 여행기 - 여행을 위해 부피를 줄인 작은 개인용, 다인용 다기이다.
- ❖ 자완 - 주로 가루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막사발이다.
- ❖ 다선 - 가루차를 저을 때 사용하는 거품기이다.

1. 규방문화와 규방다례

‘규방(閨房)’의 사전적 풀이는 ‘부녀자가 거처하는 방’이다. 그리고 ‘다례(茶禮)’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전들에서는 ‘차례(茶禮)’와 같은 말이라며 ‘명절이나 조상의 생일, 또는 음력으로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등의 낮에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다례’는 ‘차(茶)’ 다루는 법과 관계되는 제반 다사법(茶事法) 및 이에 수반되는 예의범절과 마음가짐까지를 포괄하는 말로 정의할 수 있다.

규방다례는 결국 위에서 설명한 단어의 의미와 같이, 부녀자들이 방에서 행하는 차를 다루는 법과 제반 다반사를 의미한다.

규방문화에 대한 논의는 조선시대에만 국한해 설명하기 쉬우나, 남자와 여자의 할 일이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던 삼국시대 이전까지 거슬러올라갈 수 있다.

집안살림을 도맡아 했던 아낙네들이 주로 바깥일을 하던 남편들을 내조하면서 집안의 경조사를 주관했는데, 아낙네들의 바깥 출입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던 시기에 자연스럽게 생성되어 꽃피운 우리나라의 고유문화가 바로 규방문화인 것이다.

특히 유교사상을 중시했던 조선의 경우 아내는 반드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여필종부(女必從夫)와, 아내를 내쫓는 이유가 되는 일곱 가지 사항을 열거한 칠거지악(七去之惡) 등을 내세우며 여성들의 행동과 사상을 규제했다.

규방다례의 발전은 당시 시대상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을 뜻하는 가부장제(家父長制)를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 체계는 17-18세기의 조선시대에 두드러지게 된다. 이때는 임진왜란·병자호란 등 대외적으로도 힘들었고, 대내적으로도 봉건질서의 심각한 혼란을 안정시켜야 하는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므로 여성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불평등구조의 가부장제 질서를 통해서, 기존의 신분체계·정치·경제구조를 유지·강화시키고자 했다. 그리하여 그것은 가족주의로 미화되기도 하면서 보편적인 지배이데올로기로 뿌리 내리게 되었다.

조선조의 여성들은 공식적인 대표권이나 자격 면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조선

후기로 갈수록 부계혈통이 절대화해 갔다. 이러한 부계혈통 체제의 경직화와 가문 중시의 현상에 따라 여성의 삶에 대한 통제가 심해졌다.

그 통제의 성격은 비인간적 수준이었다. '열녀관'과 '재가 금지' 그리고 '출가의인'의 이데올로기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여성은 남편을 위하여 수절하고, 남편을 따라 죽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장려되었다. 또한 친정으로부터는 출가의인으로 철저히 배제되었다. 결국 여성은 남편 가문의 혈통을 잇는 것을 지상의 과제로 삼고 시집에 충성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가능성도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유교적 가부장제의 핵심적 이데올로기는 '여성에게는 세 가지 좇아야 할 도리가 있으니 집에서는 아버지를 좇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좇고, 남편이 죽거든 아들을 좇아 잠깐도 감히 스스로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삼종지도(三從之道)이다. 여성이 남성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없는 게 명백하다. 내훈(內訓)에서 역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길만이 여자의 도리로 제시되었다. 또한 자신의 모든 욕망을 억제하고 시집살이를 견디어 나갈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했던 당시의 사회조건은, 칠거지악의 처벌조항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한편 조선조 사회가 도덕적 인간상을 표방한 만큼 여성은 '열녀'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죽어서는 남녀가 동등하게 조상으로서의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또한 상류층의 경우, 혈통을 중시한 까닭에 어머니로서의 혈통 역시 여성의 지위를 받쳐 주는 주요 요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경직된 가족생활 규범에서 제외된 여성의 삶, 예를 들면 아들을 못 낳은 여자, 남편을 잃은 여자, 그리고 이혼이 없는 세상에서 소박맞은 여자, 이들이 설 자리는 없었다.

태종 4년 6월에는 여자들이 평교자(平橋子)가 아닌 지붕이 있는 옥교자(玉橋子)를 타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두껍이 없는 가마를 타게 되면, 가마꾼들과 옷깃이 닿고 어깨를 부딪치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여자들이 출입시 얼굴을 가리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게 하는 장치가, 여기에서부터 비롯되기 시작하여 후대로 갈수록 강화된 것이다. 남자들이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가서 "이리 오너라" 하는 것도 다 내외법이 강화된 결과인 셈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선비 가문의 부녀로서 산간이나 물가에서 놀이나 잔치를 하고 야제나 산천 성황의 사묘제(祠廟祭)를 직접 지낸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그 규제를 어긴 자에게는 곤장 일백 대의 형벌이 가해졌다.

전통 가옥 구조가 안채와 사랑채로 나뉘어 있으며 서로 바라볼 수 없게 격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자는 밖에 거하고 안에 들어와 이야기하지 않아야 하며, 여자는 안에 거하고 밖에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여자는 재고장 장날을 몰라야 팔자가 좋다'는 속담대로 안방에만 들어앉아 세상사와는 격리되는 것이 이상적인 여자인 줄 알고 있었다. 남편은 부인과 침실만을 같이하면서 식탁은 같이하지 않는다. 여자와 아이와 이야기하는 자체를 권위의 손상이라고 여길 정도였다. 그러므로 부인은 남편을 '사랑양반' 또는 '바깥주인'이라고 호칭하고, 남편은 부인을 '내자' 또는 '안사람' '아낙네'라고 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남녀의 격리된 생활을 '내외한다'고 칭한다. 얼마 전까지도 시골에서는 여자아이를 도시에 보내면 남녀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아이는 '버리게 된다'고까지 여겼다.

그래서 조선조 여성들은, 특히 사대부층의 귀부인들은 얼굴을 외간 남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너울이나 장옷을 썼다. 너울은 둥근 모자 모양에 긴 자루 모양의 천을 이어 붙여 머리에 쓰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얼굴에 걸치는 부분은 앞을 투시해 내다볼 수 있는 정도의 얇은 천을 대었다. 청색이나 흑색을 주로 썼다. 신분이 높을수록 너울을 길게 늘어뜨려 품위를 높였다.

이렇게 조선시대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에 대한 편견과 구속은 당시 여성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규중처녀(閨中處女)'라고 해서 규중에 있는 처녀를 이야기하면서 이를 빗대어 '집안에서만 생활해 세상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치부되었으니,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유교 도덕의 기본이 되는 세 큰 줄기와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를 묶은 삼강오륜(三綱五倫)을 필두로 한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은 오히려 규방문화가 나뉠대로의 영역을 구축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 됐다.

조선조 여인들의 규방문화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규방가사가 대표적인데, 이는 '내방가사(內房歌辭)'로도 불리며, 「계녀가(誠女歌)」를 비롯해 「규중행실가(閨中行實歌)」 「석별가(惜別歌)」 등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다. 이런 작품들을 통해 각종 사회 규범에 얽매어 있던 조선조 여인들이 나뉠대로의 문화생활을 영유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우리나라 여성들은 남성에 예속되어 시간적·경제적으로,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만은 사실이였다. 따라서 흑자는 여성작가군의 출

현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양반계급의 부녀들만은 그래도 남녀노복(男女奴僕)과 침모(針母)·유모(乳母)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책을 읽고 자수(刺繡)를 하고, 사군자(四君子)를 칠 만한 마음의 여유는 있었다. 때로는 규중 여자들이 모여 화조월석(花朝月夕)을 기릴 줄도 알았고, 춘삼월 좋은 시절에 농춘(弄春)도 하는 풍류까지 즐겼다. 또 장성한 딸을 앓혀 놓고 엄숙하게 『여사서(女四書)』 『내훈(內訓)』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속에서 여성들에 의한 문학은 싹이 트고 자라날 수 있었으며, 또한 가사문학의 일반 유행과 함께 규중에서도 가사작품이 산출되어 굴러다녔고, 그것이 좋은 작품이라면 멀고 가까운 친척의 연줄을 타고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소지하고 애독(愛讀)하는 가사는 그들의 작품뿐 아니라 부형(父兄)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지은 것도 있었으며, 유명한 학자들의 작품도 개중에는 섞여 있게 되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조선왕조는 소위 '유한정정(幽閑貞靜)의 부덕(婦德)'을 함양시키기 위한 부녀 전용의 교과서를 많이 보급시켰는데, 『내훈』 『여사서』 등이 대표적이다. 『내훈』은 성종의 생모 인수왕후(仁粹王后)가 소학(小學)·열녀(烈女)·여교(女教)·명감(明鑑) 등 사서 중에서 여계(女誡)에 필요한 것만을 발취하여 편찬한 것이고, 『여사서』는 명나라의 인효문황후(仁孝文皇后)의 『내훈』, 후한(後韓)의 조대가(曹大家)의 『여계(女誡)』, 당(唐)의 송약신(宋若莘)의 『여논어(女論語)』, 명(明)의 왕절부(王節婦)의 『여범(女範)』 등을 집성하여 영조 12년에 명에 의해 간행한 것이다.

규방가사란 조선 영조 중엽경부터 영남지방에서 주로 양반집 부녀자들 사이에서 유행된 가사를 말하는데, '두루마리'라는 이름 아래 창작·전파·애독되었다가 육이오 전쟁 이후 소멸되었다. 내방가사(內房歌辭)·규중가도(閩中歌道)·규방문학(閩房文學)·규중가사(閩中歌辭) 등으로도 불린다.

이들 규방가사 가운데 계녀가사(誠女歌辭)로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것은 영천(永川) 정씨가(鄭氏家) 소장인 「계녀가」와, 영조 때 마전공(麻田公) 오대손(五代孫)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유실경계사(柳室警戒詞)」와, 인동지방(仁同地方)의 「규중행실가」 등을 들 수 있으나, 이 밖에도 계녀가사는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비록 규방가사의 내용 중 상당수가 계도적이거나 교훈적이긴 하지만, 그 내용

들은 생활적인 모티프와 감상적인 모티프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혼인(婚姻)·회혼례(回婚禮)·회갑근친(回甲觀親)·화전(花煎)놀이·승경유람(勝景遊覽) 등이 있고, 후자는 연모(戀慕)·회고(懷古)·우국(憂國) 등을 들 수 있다. 즉 규방가사는 부녀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생활을 노래한 것으로, 주된 내용은 교훈과 여성생활의 감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방가사는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창작, 전파되어 충청지방과 전라도에 정착되었다. 영남지방은 조선조 예학(禮學)을 깊이있게 연구한 유림(儒林)들, 즉 영남학파의 고장이고, 이러한 예학적 전통은 규방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차의 재배지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는 규방가사의 창작층과 수요층이 삼남지방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는 동시에 차 재배 및 소비층과 맞물려 있다는 자료가 된다. 규방가사의 창작 및 향유층이 양반가의 여인들이었다는 것에서도 충분한 근거를 얻는다. 전통사회에서 차란 쉽게 마실 수 있는 음료는 아니었으므로 양반가가 아니라면 접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반가 부녀자라면 내용이 달라진다. 우리나라 차의 주산지인 영남 지역의 부녀자라면, 차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이다 보니 관심이 없을 수 없다. 이는 조선조에 발행된 여러 계녀서(誡女書)의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암선생(尤庵先生) 계녀서(戒女書)'를 살펴보면, 제14장의 제목이 '의복 음식●● 도리'라고 하여 관념적인 윤리교훈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규방가사를 주제 및 내용에 의해 분류하면, 교훈류·송축류·탄식류·풍류류 혹은 교훈적인 모티프, 자탄적인 모티프, 풍류적인 모티프, 자과적(自誇的)인 모티프, 송경적(訟慶的)인 모티프, 애도적인 모티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범위는 규방 여인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풍류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류된 규방가사들이다. 「화전가(花煎歌)」류의 서정성 짙은 노래로 대표되는 이러한 종류의 규방가사들은 여인들의 풍류적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쉽게 말해 먹고 마시는 일상사를 소재로 하여 창작된 규방가사들이다.

이러한 규방가사의 내용은 차를 마시는 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규방다례란 결국 규방가사 등 이러한 규방문화, 그 중에서 조선조 양반가 여인들의 음다풍속(飲茶風俗)을 계승한 것으로, 그 뿌리는 결국 삼남지방의 전통 문화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규방다례는 우리나라 주요 차의 재배지이자 소비지인 영남지방에서 발생하여 전라와 충청지역, 즉 삼남지방에 정착된 우리 고유의 차예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그 문헌적 자료가 규방가사에서나 흔적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지만,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구조를 볼 때 충분히 납득 가능한 것이다.

조선조 문화의 주류는 어디까지나 남성문화선비문화였던 것이고, 이러한 선비문화와 대비되는 지점에 규방문화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선비문화에 비해 규범화가 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규방문화를 대표하는 다른 것으로는 '규중칠우(閨中七友)'가 있다. 선비들에게 좋은 벗이 된다는 종이·붓·먹·벼루 등 '문방사우(文房 友)'가 있다면, 규중칠우는 바느질을 하는 데 필요한 침선(針線)의 일곱 가지 물건인 바늘·실·골무·가위·자·인두·다리미를 통칭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간행되는 작자미상의 『규중칠우쟁론기(閨中七友爭論記)』는 이런 규중칠우를 의인화(擬人化)해 인간사회를 풍자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바늘·실·골무 등을 이용한 공예부문인 자수나 한복 등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으며 활발하게 보급되어 우리 전통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으며 많은 기능보유자들을 길러내 이들이 활발하게 전시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2. 행다법 형성의 연원과 정신

여기서는, 앞에서 서술한 우리 전통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실용다례와 생활다례는 물론 규방다례(閨房茶禮)가 과연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려 한다.

첫째, 전통 존중의 정신이다.

인설의 규방다례에서 존중하는 것은 전통 행다례(行茶禮) 정신이다. 즉, 중국 차문화의 개조(開祖) 육우(陸羽)의 『다경』에 나타나는 차문화와 우리나라 ??다성(茶聖)??으로 추앙받고 있는 초의선사의 『동다송』 및 『다신전』에 나타나는 차문화 예절법 등을 기초 자료로 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밝힌다. 이밖에 『고려

사』를 비롯해 『삼국사기』 등 정사(正史)에 보이는 기록들과 『고려사연등의조(高麗史燃燈儀條)』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주자가례(朱子家禮)』 『불교의식집(佛敎儀式集)』 외에 근대 이후 출판된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참고했다.

둘째, 예절 존중의 정신이다.

차문화의 기본은 예(禮)와 경애사상(敬愛思想)으로, 규방다례 등은 예절로부터 시작하여 예절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예와 경애를 존중한다.

규방다례 등에서는 손님을 초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차를 내고 다식(茶食)을 먹으면서 다담(茶談)을 나누고 손님을 배웅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포함된다. 특히 규방다례의 행다 과정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의 정신은, 유교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던 조선조 여인들이 지성을 높이고 자녀와 며느리에게 시키는 교육의 한 방편으로 활용했던 독특한 규방문화(閨房文化)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몸과 마음 중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생활에서의 예절 정신이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과학 존중의 정신이다.

행다에 있어 전통적이고 예절적인 부분을 강조하더라도 현대과학을 통해 밝혀진 사실 등을 존중하는 다법이 아니면 차의 효능과 맛과 향을 십분 발휘시켜 응용하기 어렵다. 특히 현대의 차생활이 건강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관계로 이같은 과학 존중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차의 분량은 차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잎차의 경우 일인분은 2-2.5그램이 적당하며 삼인분의 경우에는 5-5.5그램 정도가 알맞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투다법(投茶法)에 있어서는 여름에는 상투법(上投法), 봄·가을에는 중투법(中投法), 겨울에는 하투법(下投法)을 사용한다. 차를 넣고 차가 우려날 때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은 이삼 분 정도가 가장 알맞은데, 생활차를 비롯해 규방다례 등에서 다관에 차를 넣은 후 찻잔을 데운 물 등을 퇴수기에 버리는 동작간의 시간이 이와 일치하는 것은 오랜 정립 과정의 결과인 것이다. 차의 알맞은 물의 온도는 차의 등급에 따라 다소 다른데, 상품은 섭씨 60-70도, 상품과 중품은 70-80도, 하품은 80도 이상이 알맞다.

이러한 수치들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만큼 이에 유념해 규방다례 등의 차생활 예절에 응용해야 하며, 차를 내는 사람은 이에 유념해야 한다.

넷째, 생활 존중의 정신이다.

규방다례 및 기타의 차생활 예절에서는 기존의 구태의연하고 형식중심적인 차예절에서 벗어나 차를 내는 사람이나 차를 마시는 사람 모두 편해야 하며 자연스럽게 행다의 내·외면에 있는 일정한 순서를 이해해야 한다. 형식적인 부분에만 치우치다 보면 이는 사람이 차의 뒷전으로 밀려나는바, 주객전도가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값비싼 다구를 갖추지 않고도 쉽게 행다례의 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며, 번거로움으로 인해 차생활을 외면하지 않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다섯째, 청결 존중의 정신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결은 다구(茶具)의 청결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구의 청결은 손님을 맞거나 본인을 위해 기본이 되는 것이며, 마음의 청결함까지를 뜻함이다.

이상 다섯 가지 원칙 이외에도 행다를 하는 사람이나 차를 대접받는 손님의 편안하고 원활한 동선(動線)까지 고려해 행다례가 주인이나 손님 모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며, 이는 처음 차생활 예절을 배우는 청소년들은 물론 미래 차인들의 차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고려된 것이다.

또한 규방다례를 비롯해 선비차 등은 모두 생활차 예절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이는 상보 접는 법, 다관을 잡는 법, 찻잔을 들어 손님에게 전달하는 법, 다식을 대접하거나 다식저를 다루는 방법 등 모든 부분에 일관성있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행다법

행다법(行茶法)이란 차를 마실 때 행하는 차 다루는 법과 관계되는 제반 다사법(茶事法),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예의범절과 그 분위기까지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실제로 차를 운용하는 일체의 행위, 즉 차를 우려 마시는 모든 일이 바로 행다법인 것이다.

우리 행다(行茶)의 일반적인 특성은, 첫째, 차의 품성에 맞춰 차 고유의 맛을 내는 데 정성을 들이며, 둘째,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분수에 맞는 넉넉함이 있으며, 셋째, 물과 불, 차와 다구, 손님과 주인 등이 모두 하나가 되어 더불어 즐기는 것이다. 또한 물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우면서 동선(動線)이 간결하고 과장됨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이 행다례(行茶禮), 즉 차예절법인 것이다.

차를 마시는 형식에 따라 다례(茶禮)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의식(儀式)과 관련된 행다법과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 행다형식이다. 전자를 흔히 의식다례(儀式茶禮)라 말하고, 후자를 생활다례(生活茶禮)라고 표현하는데, 규방다례(閨房茶禮), 생활차 예절, 선비차 예절, 가루차 예절 등은 모두 생활행다형식, 즉 생활다례로 보면 된다.

의식다례를 다시 기본의식다례와 구상의식다례(具象儀式茶禮)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는 추모헌다례·접빈다례·경축다례 등이 포함된다. 기본의식다례는 모든 의식다례의 기본이 되는 다례법이 된다.

규방다례는 조선조 선비다례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전통의 차문화 정신에 예술성과 전통성, 그리고 현대적 차음용의 편리성 등을 더한 다례법이다.

행다법은 다시 종교적 관점에 따라 불교식과 유교식으로 나누기도 하며 그 밖에 기독교와 천주교·도교 등에서도 나름대로의 행다법을 펼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제례에서 이루어지는 다례를 따로 분리시켜 특별히 제례다례(祭禮茶禮)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포괄적 의미에서는 제례도 의식의 한 형태로 의식다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차생활에 있어서 행다법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다만 너무 형식에 치우쳐 차생활 자체를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문화가 그렇듯 차문화도 시대나 환경에 따라 변형될 수 있으며 결국 변형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이치이다. 예를 들면, 『삼국사기』의 기록이

후 전개된 삼국시대의 행다법과 오늘날의 그것이 같을 수 없다 제다(製茶) 과정을 비롯해 차와 관련된 일련의 모든 일들이 기록 부재 등으로 인해 그대로 보존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필자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만약 우리만의 독특한 차문화 예절법이 확실한 증거들로 오늘날까지 전승되었다면 현재의 논란들과 차문화 예절법에 대한 여러 목소리들은 모두 불식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규방다례의 실제

규방다례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중국·일본·대만·독일·인도·스리랑카 등 세계 각국을 돌며 우리 차문화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자랑스런 전통문화로 자리잡았다.

그 동안 해외 현지에서 규방다례를 선보이는 데 있어 부대행사로 소개되었던 것이 전통 궁중의상 발표이다. 현지의 외국인들은 그 동안 한국 안내 관광 책자 등에서나 보아 왔던 우리 전통의상의 화려함에 놀라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정적인 차문화 시연에 이어 벌어진 패션쇼 형식의 궁중의상의 동적인 면들은 오천년 역사의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했고, 박수 갈채를 받기에 충분했다.

주인은 분홍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돕는이는 색동이나 노란 저고리에 꽃분홍이나 빨간 치마, 손님은 미색 저고리에 주황 치마나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혹은 은행색 저고리에 초록(수박색) 치마 등이 그것인데, 이는 전체 출연진의 색조화뿐만 아니라 음양의 이치와 결부된 것임을 알리고자 한다. 우리 조상들은 생활 속에서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이치를 중요시하고 이를 지키려 했다. 이는 단지 주술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밝힌 규방다례 시연의 한복 색의 조화는 오방(五方), 즉 동·서·남·북·중앙을 나타낸다. 이를 색으로 표현하면 동은 청색(靑色)으로 목(木)이요, 남은 적색(赤色)으로 화(火)요, 서는 백색(白色)으로 금(金)이며, 북은 흑색(黑色)으로 수(水)이고, 중앙은 황색(黃色)으로 토(土)를 의미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오색이 나온 것인데, '오색영롱'에서의 오색은 오행(五行)·오덕(五德)·오방(五方)·오미(五味)와 같은 관념으로 만물의 조화라는 뜻을 담고 있다.

5. 절과 예절

예절(禮節)이란 사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도리와 질서이다. 정신과 형식은 그 사회의 공통된 약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절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변천해 왔다. 한 사회의 계급과 계층을 시작으로 지역·인종·시대에 따라 문화가 달라지므로 그에 걸맞게 변하는 특징은 예절의 다양성이다.

불어의 에티켓(tiquette)도 낚앙스는 조금 다르지만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예의범절이니 에티켓이니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람이 가져야 할 올바른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예기(禮記)』에, '행동을 바르게 하고 말을 도리에 맞게 하는 것이 예의 근본이다(行修言道 禮之質也)'라 하여,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그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지금은 프로토콜(protocol)이란 용어가 보편화했지만, 에티켓이란 말은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뚝을 박고, '꽃밭을 훼손하지 맙시다'하는 팻말을 꽂았는데, 이 팻말을 에티켓(tiquette)이라 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프랑스어로 에티켓이란 원래 '꼬리표'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심지어 식물에까지도 어떤 상처도 입히지 않으려는 인간의 인격과 품위를 엿볼 수 있다.

고대 중국에 있어서 정치와 종교와 도덕 등이 분화되기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모두 '예'라고 불렀다. 『논어(論語)』에서도 '법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법망을 빠져나가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지만,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린다면 수치를 알아 바르게 된다(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고 했다.

예에 의한 통치란, 예의 이름으로 국가의 법제를 서서히 확립시켜, 왕이나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분수를 지키게 하여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방식으로서, 따라서 예의 범위는 아주 넓고 합리적인 실천규범이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으며'(『논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태백음」) 것이 바로 예절이나 에티켓이 함유하고 있는 기본 정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절이나 에티켓은 시대와 장소, 그리고

문화의 양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봉건시대의 예절이 오늘에 통하지 않으며, 서양의 예절이 원형대로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앞서 말한 기본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절은 능동적으로 그때그때 걸맞은 일정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나를 낮춤으로써 남을 높이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예절의 근본정신만큼은 변화하지 않는 이치로 남아 있다.

그 가운데 절은 몸을 굽혀서 예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예절 표현 방법의 정수(精髓)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절의 사전적 의미는 '몸을 굽혀 경의를 표하는 인사'로 한자로는 '배(拜)'인데, 『설문해자(說文解字)』의 단주(段注)에 '머리를 손에 대는 것'이라 하여 땅을 짚은 손에 머리를 대고 절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절은 유교, 특히 주자학이 정치이념으로 수용되면서 『주자가례(朱子家禮)』가 바탕이 되었다. 관련 문헌들로는 김장생(金長生)의 『가례집람(家禮輯覽)』을 비롯해 이익(李滉)의 『성호사설유선(星湖僿說類選)』 중의 「인사(人事)」편, 정구(鄭述)의 『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設分類)』 중의 「잡례(雜禮)」, 유장원(柳長源)의 『상변통고(常變通攷)』 중의 「통례(通禮)」와 『거가잡의(居家雜儀)』 등이 있다.

이들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절은 자세에 따라 차수(叉手)·읍(揖)·궤(?)·배(拜)의 네 단계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현대로 넘어와 앞에서 설명했듯이 절은 그 지역과 시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남자의 절보다 여자의 절의 이질성은 더욱 심각하다.

남자의 경우는 전통한복이나 양복 모두가 바지이기 때문에 절을 하기에 불편함이 없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전통한복은 긴 치마이지만 요즘에 와서는 짧은 치마에 편안한 바지를 입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긴 치마를 입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고 두 무릎을 벌리고 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문화란 그대로 지켜져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짧은 치마나 바지로도 쉽게 할 수 있는 절이 정착이 되었으면 한다.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는 절의 종류를 남녀를 구별해 큰절, 평절(平拜), 약식절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평절의 경우,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주자가례』에서 주자(朱子)가 설명했듯이 '평등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절은 연소자가

윗어른에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등, 계층·계급상 아래에서 위로 행하는 예절 형식이니만큼 이는 적당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 '뵈는절'이나 '인사절' '세배절'로 명칭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큰절·뵈는절·상례절로 나눠 설명하고자 한다.

큰절은 혼례·현구고례(見舅姑禮)·고희(古稀), 부모의 회갑이나 칠순 등 큰 예를 갖출 때 하는 절로 그 의식에 따라 수모(手母)가 부축해 도와주기도 한다. 절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복 착용시에는 가부좌를, 평상복일 경우에는 무릎을 꿇고 한다.

뵈는절(인사절, 세배절)은 평상시에 어른을 뵈 때 하는 절과 명절 때 하는 절로, 하는 방법은 한복과 평상복으로 나눠 큰절과 같다.

상례절(제례절)은 공수(拱手)한 손에 위치가 바뀌지만 망자가 가족 등 일가 친척이나 특별한 관계가 아닌 보통의 조문을 갈 때는 공수한 손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이들 절의 기본은 공수인데, 절을 시작할 때도 공수로써 하고 마무리를 할 때도 공수로 예를 갖춘다. 공수에서 남자의 경우 왼손이 오른손 위로 가고 여자는 반대가 되는, '남좌여우(男左女右)'의 이치는, 태양광선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태양광선을 가장 잘 받는 남쪽을 향하는 것이 정칙(正則)이기 때문이다. 이는 남쪽을 향할 경우 왼편이 동쪽이고, 오른편이 서쪽이며, 동쪽은 해가 뜨니까 양(陽)이고, 서쪽은 해가 지니까 음(陰)으로, 남자의 방위는 동쪽인데 그 동쪽이 왼 편에 있으니 남자는 좌(男左)이고, 여자의 방위는 서쪽인데 그 서쪽이 오른편에 있으니 여자는 우(女右)가 되는 것이다.

이는 남동여서(男東女西)의 방향과 상관인 것으로, 손잡는 데도 음양의 이치를 존중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인다.

1. 김포의 어제와 오늘

경기도 서북단에 위치한 김포시는 반도지역으로 동쪽에서 한강을 건너 파주시, 고양시, 서쪽으로 염하강을 건너 강화군, 북쪽으로 조강(組江)을 건너 북한 황해도 개풍군을 향하고 있으며 동남쪽으로 서울특별시와 부천시, 인천광역시와 연결하고 있다. 김포시는 한강상류와 지류에서 운반된 토사의 축적지로 전체면적의 42%가 농경지인 평야지대다.

예로부터 기름진 옥토와 풍부한 한강물은 김포반도지역을 쌀 농사의 최적지로 만들어 주었고, 그 결과 김포는 천혜의 축복받는 부촌이 되었다.

하성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다리쌀(자광미)은 밥맛이 좋고 미질이 좋아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진상미가 될 정도로 김포쌀은 최상의 미질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통진면 가현리 일대 이탄층(泥炭層)에서 발굴된 탄화미를 조사분석한 결과 연대측정치가 기원전 2010±25로 나타나 우리나라 최초의 쌀 생산지임이 국제학술회의(2000. 4. 28)를 통해 입증됐다.

이곳 김포는 남북 분단의 접적지로 개성과 토양이 같아 한때 6년근 고려 인삼 재배지로 각광을 받았으며, 지금은 당도가 높고 맛이 좋은 배와 포도가 주로 재배되고 있다. 주요 산으로는 북쪽으로 병인양요 때 격전지였던 문수산(376m)과 옛 김포의 주산이었던 장능산(150m), 가현산(220m) 등이 자리하고 있다.

남북한 대치사항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한강하구를 거쳐 서울로 생필품을 운반하는 모든 상선의 중간기착지였고, 도매상인들이 불야성을 이루었던 조강포구의 취락은 군작전상 소개되어 지금은 흔적도 없다. 옛 이곳 사람들은 연세에 관계 없이 풍년농사를 지은 탓으로 인심이 넉넉하고 순박하였다.

2. 역사적 사건과 현장

- 인조와 사연 많은 김포 조선조 16대 왕인 인조대왕은 1627년(인조5년) 8월 27일에 부왕인 원종대왕과 인현왕후의 묘를 양주 곡촌리에서 김포 북성산으로 이장했다. 이로 인하여 북성산(北成山)은 장릉산(章陵山)으로 지명이 바뀌었고, 북성산 경내에 있었던 김포현 관아와 민가들은 모두 철거되어 현 북변동 일대로 이주케 되었다.

그 후 장릉산은 김포의 진산이 되었고, 그 덕에 김포현이 김포군으로 한 등급 승격되는 예우를 받게 됐다. 같은해(1627) 정묘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의 침입을 피해 강화도로 몽진할 때 갑곶나루에 다다르니 염하강을 도강하는 배가 준비되지 않아 정월 28, 29일 이틀간 통진현 객사(현 월곶면 사무소 옆)에 머물면서 대신들과 국정을 논의했던 어두운 역사의 현장이 현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 양요의 격전지 1866년(고종3년) 9월 6일 불란서 연합함대 7척이 600명의 병력으로 강화도 갑곶진에 상륙하여 9월 8일 강화성을 점령했다. 그리고 10일 후 문수산성을 공격해 치열한 백병전이 있었다. 이 때 문수산성을 수비하던 우리 조선군의 무기는 유효사거리 100보 미만의 호승총 뿐이었고, 불란서군은 유효사거리 500보가 넘는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어 병력과 무기의 열세로 문수산성을 내놓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 포수 4명이 전사하고 2명이 부상, 1명이 포로가 되었고, 불란서군은 전사 2명, 25명이 부상당해 불란서군의 피해는 의외로 컸다. 이에 대한 분풀이로 불란서군은 산성 내에 민가 29채와 성내 누각, 공해루, 취가루, 남문루 등을 모두 불태웠다.

그리고 5년 후 1871년(고종8년) 신미양요 때에는 대곶면 신안리에 있는 덕포진에서 미함대와 치열한 포격전이 있었던 역사의 현장이었다.

3. 역사적 인물

- 의병장 중봉 조헌 조헌(趙憲, 1544~1592)은 본관이 백천(白川)이고, 김포시 감정동 태생이다. 명종 22년(1567)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벼슬길에 올랐다. 그는 항상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을 정도로 학구적이고, 효도가 남달랐다. 올곧은 성품으로 충성어린 상소를 많이 했고, 반면 모함도 많이 받았다. 선조 24년(1591) 일본사신이 오자 사신의 처단을 상소했고 왜침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조정은 이를 외면했다. 이듬해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그 해 8월에 승장 영규(靈圭)가 이끄는 승병(僧兵)과 함께 청주를 수복하고 금산싸움에서 7백 의병과 최후까지 분전하다 다함께 순절했다.

영의정에 추증되고 시호는 문열(文列)이다. 중봉은 의병장이기 앞서 이율곡과 성우제의 후학으로 실학사상을 연구한 학성이다. 그래서 이율곡의 뒤를 잇는다고 자신은 후율(後栗)이란 호를 더 좋아했다. 그가 생장한 터에 우저서원(牛渚署院)을 짓고 제향하고 있다.

- 여지승람을 펴낸 놀재 양성지 양성지(梁誠之, 1415~1482)는 본관이 남원(南原)이다. 조선조 대학자요, 문신으로 호는 놀재(訥齋)이다. 세종 23년(1441)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하고 이어 식년문과에 급제했다. 훈구파의 중진으로 집현전에 들어가 「고려사」를 개찬했다.

단종 1년(1463) 「조선도도(朝鮮都圖)」, 「팔도각도(八道各圖)」를 작성했고, 「황극치평도(皇極治平圖)」(1464),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1455), 「동국지도(東國地圖)」(1463)를 찬진했다.

홍문관(弘文館) 설치를 건의, 역대 서적을 보관케하고, 『오륜록(五倫錄)』, 『해동성씨록(海東姓氏錄)』을 찬진했다. 예종 1년(1469) 『세조실록』, 성종 1년(1470) 『예지실록』을 편찬했다.

성종 12년(1481) 홍문관 대제학으로 『여지승람』을 편찬했다. 시호는 문양(文襄)이고 양촌면 대포리에 묘소와 사당이 있다.

4. 생활문화자원

“전통생활민속”

□ 손돌(孫覈)진흔제와 바라춤 조선왕조 정조 때 유학자 홍석모(洪錫謨)에 의해 헌종 15년(1849년 9월 이전)에 편찬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해마다 10월 20일에는 큰 바람이 불고 날씨가 찬데 이를 ‘손돌이 바람’이라 한다. 고려 때 어느 왕이 배를 타고 해로를 따라 강화도로 가는데 손돌이 배를 험한 뱃길로 몰고 들어갔다.

뱃길을 알지 못하는 왕은 손돌의 행위에 의구심이 생겨 진노하여 손돌의 목을 베라고 명했다. 얼마 안되어 배는 위험한 곳을 빠져나왔는데 지금 그곳을 손돌목이라 한다. 손돌이 무참히 해를 당한 그 날, 억울하게 죽은 그의 원기가 날씨를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 통진두레놀이 농경을 위한 공동체인 두레놀이로 통진면 용정리를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다. 영농의 노동요를 길들여 힘든 농사일에 흥을 돋우고 있다. 밭씨뿌리기→논갈기→씨래질→고사→모찌기→모내기→새참먹기→물고싸움→김매기→벼베기→탈곡→섬쌓기 등 옛 농사짓던 모습을 완전히 재현하고 있다.

□ 김포상두꾼 소리 김포시 풍무동, 사우동 주민들에 의해 전승되어 온 김포 고유의 민속장례의식이다. 상여가 나갈 때 부르는 소리와 입관 후 회다지는 소리를 통틀어 일컫는다.

“구전설화”

□ 손돌추위 손돌의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찬미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원혼이 음력 10월 20일 매서운 추위를 몰고 온다는 내용

□ 형제 투금포(兄弟 投金浦) 횡재한 두 형제가 재물욕이 생겨 형제간의 의가 상할까봐 나무를 건너다 강물에 금덩이를 버린다는 이야기

□ 애기봉 이야기 평양감사로 간 님을 그리는 기생 애기(愛妓)의 슬픈 사랑 이야기로, 죽거든 애기봉 정상에 선채로 북녘의 님을 향해 묻어 달라고 했다는 것이 줄거리이다.

□ 우렁각시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딸인 선녀를 우렁이로 변신시켜 인간이 사는 속세로 보낸다. 마침 아내를 잃고 홀로 사는 홀아비 농부의 터밭에 떨어진다. 농부는 우렁이를 불쌍히 여겨 물항아리에 넣어두고 자신의 밥을 나눠 먹여 키우게 된다.

선녀는 물항아리에서 백일동안을 지낸 후 인간으로 환생하여 매일 농부를 위해 진수성찬을 마련하여 놓는다. 이를 이상히 여긴 농부가 숨어 있다가 우렁이의 정체를 알게 되고, 두 사람은 사랑이 움트게 된다. 그리고 옥황상제의 승낙을 얻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5. 관광자원

□ 김포조각공원 김포의 명산 문수산 남쪽자락인 고막리에 있다. 세계 각국의 저명한 조각가의 작품의 미로와 같은 자연림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과 한울타리 안에 있어 청소년들의 체험학습장으로도 안성맞춤이고 눈썰매장도 있어 겨울에는 한층 더 운치가 있다.

□ 문수산성 강화대교를 건너가기 전 버스에서 내리면 병인양요 때 불란서군과의 격전지였던 문수산성(사적 제139호)을 볼 수 있다. 문수산성은 1694년(조선조 19대 숙종 20년)에 축조한 산성으로 길이가 6,201m나 된다. 산성을 따라 오르면 옛 문수사지와 풍담대사 부도 및 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1호)를 답사할 수 있다. 해발 376m 정상에 오르면 봉화대터에서 한강하류와 임진강 하류, 그리고 예성강이 합류하는 강화만의 비경을 조망할 수 있고, 발 아래로 북한이 개풍군땅이 시야에 들어온다. 내려오는 산줄기에 각종 레포츠 시설을 갖춘 삼림욕장이 있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삼림욕장 입구에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의 기능보유자 벽응(본명 장태남)스님이

주지로 있다. 입적한 문수사가 있다. 문수사에서 강화대교쪽 48번 국도로 나오는 길 옆에 있는 갑곶(甲串)나루선착 석축로(지방기념물 제108호)를 볼 수 있다.

이 나루 석축로는 조선 초기, 박신(朴信)이 개인 재산을 투입하여 세운 것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1419년 공사를 시작하여 1432년에 완공, 13년간의 역사 끝에 축조한 것이다. 김포쪽은 폭 12m, 길이 40m, 강화쪽 폭 35~50m, 길이 35m나 된다. 이 나루에서 외침을 피해 강화도로 쫓겨갔던 역사 속의 여러 임금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국력이 무엇인지 느끼게 된다.

- 덕포진 사적 제292호로 대곶면 신안리 손돌목에 있다. 1980년 발굴되어 복원된 진지로서 선조조에 축조되지 않았나 추정되며 15기의 포대가 염하강을 향해 구축되어 있다. 신미양요 때 격전지로 당시의 포성이 메아리치듯 감회가 새롭다. 덕포진을 따라 돌출부인 손돌목 위에 오르면 손돌의 묘가 우국하던 백성들의 충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 애기봉 통일안보관광지로 해병2사단 군영내인 하성면 가금리에 있다. 기생애기의 설화에서 유래되어 명명된 애기봉에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가 새겨진 비가 우뚝 서있고 북한 땅을 가장 가까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다. 그 옆에 실향민의 망배단이 설치되어 매년 합동으로 제향을 한다. 나오는 길목에 한재당(지방기념물 제47호)에서 무오사화 때 28세의 젊은 나이에 화를 입은 이목(李 穆) 선생의 충절을 되새길 수 있다. 이목선생이 마시던 한재차(茶) 나무와 한재다정, 정자에서 우국 충절을 논했던 당시 현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덕포진

- 분 류 : 사적 제292호
- 소재지 :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105번지
- 시 대 : 조선



덕포진은 서해로부터 강화만을 거쳐 서울로 진입되는 입구인 손돌항에 천연의 요새를 이용한 군사적 요충이고 임진왜란의 쓰라린 체험을 겪은 조선 선조때 창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조 숙종8년(1682) 3월까지 월곶진이 주진이었으나 그 후 덕포진을 주진으로 승격하여 영종과 안흥진을 관장하게 하였고, 숙종 20년(1694) 통진현이 도호부로 승격하면서 덕포진도 강화도로부터 통진으로 그 예속이 변경되었다.

그 후 영조36년(1760)에는 덕포진에 종삼품의 수군 첨사가 수군 316명을 지휘했으며 부에서 전속 수영거리는 남쪽으로 15리에 이르렀다.

고종 8년(1871) 9월 편입된 통진읍지에는 덕포진은 군사상으로 강화 통어영에 속하고 행정상으로는 통진에 속하였으며 첨사 1명과 수군 316명 그리고 방선 2척, 병선 1척, 사후선 3척이 소속되었다. 그리고 건물로는 객사가 2칸, 내외진사 9칸과 삼문과 행랑이 10칸반 어변정 10칸이 있었고 신미양요 후에 증건한 무기고 3칸이 있었다.

손돌항 포대와 돈대 사이에는 파수청 4칸을 건립하였고 광무 3년(1899)에 편입된 김포읍지 및 지도 성책에 따르면 1876년 봄, 손돌항 포대 15기를 건립하여 국토 방어 시설을 갖추게 하였다.

1980년 발굴 작업을 하여 복원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07년 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산교육장으로 면모를 갖추었다. 당시 발굴된 유물 중 덕포진 전시관에 소포, 중포, 포탄 및 상평통보 등이 보관중이다.

김포다도박물관



김포다도박물관은 한국 차(茶)문화 역사를 재조명 할 수 있도록 손민영 이사장이 평생 수집한 다도구류 3,000여점과 사비로 설립 하여, 2001년 5월 20일 개관한 국내 유일 사립 다도박물관으로써, 현재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832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김포다도박물관은 부지 6천여 평 위에 조각 공원, 야외설치미술관의 부대시설과 다양한 문화행사와 공연을 개최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 예술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일반시민들이 자연을 체험하며 우리의 전통생활문화와 인성교육을 교육받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정자, 연못, 잔디정원을 조성하였다.

김포다도박물관은 살아 숨 쉬는 예절과 차(茶)문화역사의 현장을 재현하고 일반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특별전을 기획·전시하고 있다.

□ 소장품현황

다도구류 3,000여점 중 일부 전시

- 1) 도자기류 - 백자, 청자, 토기 등
- 2) 금속류 - 화로, 풍로, 연지 등
- 3) 서화류 - 동다송병풍, 화초병풍, 전각 등
- 4) 목기류 - 규방다례상(5점), 선비다례상(5점), 팔각상(1점), 연상(1점) 백오동평상(1점) 등
- 5) 자수류 - 의거리장(2쌍), 화초장(1쌍), 함, 문갑, 사방탁자 등

□ 사업내용

- 1) 전시 - 다도구류 외 특별전 기획준비
- 2) 행사 - 연꽃축제, 들차회
- 3) 교육 - 다도박물관 문화대학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예절과 다도'교육 기업체 '예절(직장예절, 생활예절, 전통예절 등)과 다도'교육
- 4) 무료교육 및 특강 - 여름·겨울방학 중 '예절과 다도'교육 '설명절, 추석명절 차례상 차리는 법'특강

□ 체험 프로그램

- 1) 다도 예절 배우기
- 2) 한복 입는법 배우기
- 3) 절 배우기
- 4) 민속놀이

발행일 2008년 11월
발행인 남선우
편집인 김성문 · 신미영
발행처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6층
전 화 (031) 239-1020
E-mail kccf-kg21@hanmail.net
Homepage <http://kccfgg.or.kr>

※ 본 책자는 경기도의 예산으로 제작되었음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오감 체험
五感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